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에 따른 미충족 의료의 이해 -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중심으로

Understanding unmet healthcare needs in the wake of COVID-19 pandemic in Korea

황종남¹ & 허종호²

¹원광대학교 복지보건학부 보건행정학 전공

²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Background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감염환자와 이에 따른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이 기존의 의료체제로 응하기 역부족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의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감소와 함께 적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의 미국, 캐나다를 비롯하여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다.
-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이외에 실제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개인의 인지하는 두려움과 심각성과 방역정책에 대한 이해, 신뢰, 그리고 만족이 미충족 의료의 경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Methods

- 본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2020년 실시한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는 대한민국 만 15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단계층화집락추출 방식을 통해 추출된 총 6,500가구, 14,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행복측정, 행복의 결정요인 분석, 코로나 모듈로 설문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분석대상에 포함, 결측치를 제외한 총 13,491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코로나 발생 이후(2020,02~) 코로나 진단 및 치료 이외의 미충족 의료경험 유무이며, 독립변수는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두려움과 심각성, 우리나라 방역대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 만족여부이며, STATA v.15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s

Table1. 미충족 의료 경험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 2020 (n=13,491)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OR	95%CI	OR	95%CI	OR	95%CI
Perception of Covid-19						
Afraid	1.46*	1.19-1.80	1.61*	1.29-2.02	1.36*	1.08-1.73
Seriousness of COVID-19			0.93	0.87-1.00	1.05	0.97-1.13
Gender (ref. male)						
Female					1.08	0.86-1.37
Age (ref. 19-34)						
35-49					0.75	0.53-1.06
50-64					0.84	0.60-1.18
65+					0.83	0.55-1.26
Chronic condition(ref.0)						
Less than 3					6.45*	4.77-8.72
More than 3					3.45*	2.59-4.60
Self-rated health (ref. good)						
Bad					1.69*	1.22-2.33
Marital status (ref. Partnered)						
Single					0.85	0.65-1.13
Education(ref. College or above)						
Middle school or under					0.42*	0.27-0.64
High school					0.80	0.63-1.03
Income (ref. Q5)						
Q1					1.92*	1.15-3.20
Q2					2.41*	1.50-3.87
Q3					2.15*	1.39-3.31
Q4					2.00*	1.30-3.06
Economic activity (ref. employed)						
Self-employed					1.13	0.84-1.52
Non-paid family business					1.24	0.69-2.25
Non-working					0.92	0.67-1.26
Region (ref. Seoul metro region)						
Non-Seoul metro regions					0.30*	0.25-0.38

Table2. 코로나 방역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충족 의료와의 관계 - 한국인의 행복조사 연구 2020 (n=13,491)

Variables	Understanding		Trust		Satisfaction	
	OR	95%CI	OR	95%CI	OR	95%CI
Perception of public health measures						
Poor	1.95*	1.38-2.75	1.93*	1.37-2.74	2.48*	1.83-3.36
Fair	1.28*	1.03-1.60	1.14	0.90-1.43	1.25	0.99-1.58
Age (ref. 19-34)						
35-49	1.10	0.87-1.38	1.11	0.88-1.40	1.10	0.87-1.39
50-64						
65+	0.77	0.54-1.08	0.77	0.55-1.09	0.77	0.55-1.09
Chronic condition(ref.0)						
Less than 3	0.85	0.56-1.29	0.84	0.56-1.28	0.84	0.55-1.27
More than 3						
Self-rated health (ref. good)						
Bad	5.89*	4.33-8.01	6.00*	4.42-8.16	5.86*	4.33-7.92
Marital status (ref. Partnered)						
Single	3.22*	2.55-4.54	3.31*	2.49-4.42	3.19*	2.39-4.27
Education(ref. College or above)						
Middle school or under	1.75*	1.28-2.42	1.74*	1.27-2.39	1.80*	1.31-2.48
High school						
Income (ref. Q5)						
Q1	0.83	0.62-1.09	0.83	0.63-1.10	0.84	0.63-1.11
Q2						
Q3	0.44*	0.28-0.67	0.43*	0.28-0.66	0.44*	0.29-0.68
Q4	0.82	0.64-1.05	0.82	0.64-1.04	0.84	0.66-1.07
Economic activity (ref. employed)						
Self-employed	2.07*	1.23-3.50	2.03*	1.21-3.41	1.97*	1.18-3.30
Non-paid family business	2.58*	1.59-4.18	2.60*	1.61-4.20	2.55*	1.58-4.11
Non-working	2.25*	1.46-3.48	2.21*	1.43-3.41	2.17*	1.41-3.35
Region (ref. Seoul metro region)						
Non-Seoul metro regions	2.04*	1.33-3.13	2.03*	1.32-3.12	2.01*	1.31-3.09
	1.12	0.83-1.50	1.12	0.84-1.51	1.11	0.82-1.49
	1.19	0.66-2.18	1.21	0.67-2.18	1.26	0.70-2.26
	0.87	0.63-1.21	0.88	0.64-1.23	0.90	0.65-1.25

- 인구사회학적 수준과 건강수준을 모두 통제한 모델 3의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두려움이 미충족 의료 경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개인의 심각성 정도는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인지된 심각성은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된 개인의 인지된 두려움은 미충족 의료 경험을 높이는 장애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이해, 신뢰, 그리고 만족이 낮은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미충족 의료 경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또한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대한 이해가 보통인 경우도 미충족 의료 경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clusions

-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보다는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정책 중재안이 제시될 때 미충족 의료 경험도 함께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할 때 의료서비스 이용하는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미충족 의료 발생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 효율성을 강화하여 두려움이 없이 기존 생활을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을 비롯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위드코로나’ 정책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